

생애 말기 환자와 가족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

- 제14회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념식 개최 -
- 의료진,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현장 종사자 표창 통해 헌신과 노고 격려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20일(화) 서울 용산구에서 「제14회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념식」을 개최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현장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 지정)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로 정함

이번 기념식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국립암센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관계자, 학회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하였다.

<관련 제도 소개>

- ◇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존엄한 마무리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통증과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사회적·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 ◇ (연명의료결정제도)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이날 행사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의미의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라는 표어 아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여와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의 기념사가 있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관한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사별가족인 소프라노 신동성 성악가의 축하공연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기념식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착과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33명 및 7개 단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총 40점)을 수여하였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와 가족 중심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기여한 메트로병원 박종우 센터장, 지역사회 주민들 대상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수행한 성가롤로병원 표수진 간호사, 무연고 말기 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 환자 보호에 앞장선 동래성모병원 김규림 사회복지사가 표창을 받았다. 또한, 자원봉사자로서 5,893시간 말기 환자의 돌봄에 기여한 가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박미리 자원봉사자 등이 표창을 받았다.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에서는 의료기관 내 제도 안내 및 상담 대상을 확대한 서울아산병원 김선영 교수,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으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활성화에 기여한 구미보건소 및 아우내은빛복지관 김경순 상담사,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공용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제도 확산에 기여한 부산대학교병원 등이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국민들이 자신의 생애 말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 장례지원 제도 등 관련 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통합 홍보 자료를 제작하였다. 해당 홍보 자료는 11월부터 관련 기관*을 통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형훈 제2차관은 “오늘 행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요즘, 묵묵히 현장에서 애쓰

시는 의료진,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여러 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를 전하는 데 의미가 크다” 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모두가 가까이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확대와 제도 운영 개선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14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 개요
2. 제14회 호스피스의 날 유공 수상자 명단
3. 생애 말 관련 제도 통합 홍보 자료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	책임자	과 장	모두순	(044-202-2450)
		담당자	사무관	최지웅	(044-202-2451)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책임자	사무관	안현빈	(044-202-2455)
			센터장	조현정	(031-920-2191)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	담당자	질향상교육팀장	김보람	(031-920-1716)
		책임자	본부장	백수진	(02-778-7505)
		담당자	팀 장	최슬비	(02-778-7001)

□ **개요**

- (일시) '26. 10. 20. (화) 14:00~15:15
- (장소)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6층 플로리스홀(서울 용산 소재)
- (목적)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발전·운영에 기여한 종사자에 장관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13~)
- (참석자) 보건복지부 제2차관,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경영지원본부장, 유관 학회 관계자*, 수상자 (40인**) 등 약 130명

* 심재용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 권소희 한국호스피스완화간호사회장

** 호스피스·완화의료 분야(20점), 연명의료결정제도 분야(20점)

□ **세부 일정(안)**

시 간	행사 순서	주요 내용
14:00 ~ 14:05('5)	① 개회 선언 및 국민의례	□ 사회자의 개식 고지
		□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 내빈 소개
14:05 ~ 14:10('5)	② 기념사 및 인사말	□ 보건복지부 2차관
14:10 ~ 14:20('10)		□ 국립암센터 사업본부장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 직무대행
14:20 ~ 14:30('10)	③ 영상 상영	□ 호스피스 홍보 영상 □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영상
14:30 ~ 14:55('25)	④ 시상식 및 기념 촬영	□ 시상(40인) □ 수상자 기념 촬영 □ 참석자 단체 기념 촬영
14:55 ~ 15:10('15)	⑤ 축하공연	□ 공연
15:10 ~ 15:15('5)	⑥ 폐회 선언	□ 폐회선언

붙임 2

제14회 호스피스·완화의료 유공 수상자 명단

연번	소속/봉사기관	직 위(또는 직급)	성 함	비고
1	서울아산병원	임상부교수	서세영	호스피스 완화의료
2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간호사	김영주	
3	메트로병원	의사	박종우	
4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내과 과장	양영준	
5	성가롤로병원	간호사	표수진	
6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간호사	김태희	
7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	한형숙	
8	재)천주교부산교구부산성모병원	간호사	하미혜	
9	길의료재단	간호사	채선화	
10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간호사	차현희	
11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간호사	장혜지	
12	충남대학교병원	간호사	권윤현	
13	제주대학교병원	교수	한상훈	
14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의사	김성민	
15	서울적십자병원	사회복지사	김나현	
16	동래성모병원	사회복지사	김규림	
17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박미리	
18	충북대학교병원	교수	이재우	
19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사회복지사	박은미	
20	국립암센터	간호사	이지은	
21	서울아산병원	교수	김선영	연명 의료 결정 제도
22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팀장	최슬비	
23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간호사	조지희	
24	(사)호스피스코리아	팀장	남인희	
25	아우내온빛복지관	상담사	김경순	
26	괴산군보건소	주무관	정현주	
27	사상구보건소	주무관	김복선	
28	익산시보건소	주무관	김혜영	
29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	정재경	
30	전북대학교병원	팀장	이상재	
31	영남대학교의료원	간호사	김형옥	
32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교수	이연	
33	서울적십자병원	센터장	조성철	
34	충청남도서산의료원	단체	-	
35	삼척시노인복지관	단체	-	
36	구미보건소	단체	-	
37	생애말기돌봄연구소	단체	-	
38	부평구보건소	단체	-	
39	부산대학교병원	단체	-	
40	의료법인 명문의료재단 대구기독병원	단체	-	

"오늘도 — 나답게."

나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4가지 이야기.



보건복지부, 국가생애주기정책위원회, 한국건강보험협회, 중앙의료시스템센터, KODA, 한국장제문화진흥회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온 시간을
소중히 지키는 일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조직 기증
희망등록



장례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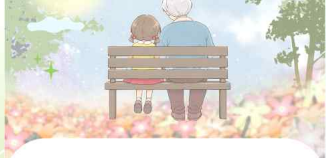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알아보는 것, 그 작은 관심이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큰 배려가 됩니다.

언젠가 찾아올 그 순간, 나는
무엇을 원할까요?

지금은 잘 지내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삶의 마지막은
찾아옵니다.
나와 가족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4가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것은
오늘의 삶을 더
소중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지금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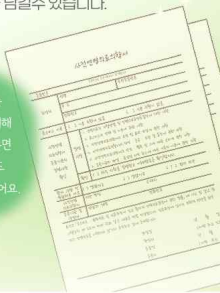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마지막 의료, 나는
어디까지 원할까요?

건강할 때 미리
또는 병원에서 의사와 함께
삶의 마지막에 받을
연명의료에 대한
나의 뜻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연명의료에 대해
미리 생각해두면
가족도 나도
더 편안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아픔보다 편안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통증과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고,
환자와 가족의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의료 돌봄 서비스입니다.

치료의 끝이 아닌
따뜻한 돌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의 마지막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조직 기증희망등록을 통해
생명 나눔에 대한
나의 뜻을 미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누군가의 삶은
계속될 수 있어요.

마지막 인사도, 나답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전장례의향서를 통해
원하는 장례 방식이나 장지 등에
대한 생각을 미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이야기해두면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나의 뜻을 남기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지금, QR코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지금, QR코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장기·조직 기증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지금, QR코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장례 준비와 장의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지금, QR코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세요.